

노인동거가족의 공간적 환경 요구 특성에 관한 연구¹⁾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Spatial Environmental Needs in a Three generation Family

이 연 숙²⁾
Lee, Yeun - Sook
신 화 경³⁾
Shin, Hwa - Kyoung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grasp the spatial environmental needs of a three generation family, thereby to suggest some major concepts which can be used as basic design guidelines for a three generation family housing. Data were collected through a questionnaire survey from 467 housewives living in a three generation family households.

Results showed that most respondents want to be separated from their old parents. This tendency, however, changed once a housing alternative for the three generation living was assumed to have been developed. The most preferred alternative housing units were identified. The desirable proportions of the unit alternatives were 34% for a single unit, 28% for the two connected units, 7% for two separated units within a building, and 32% for two separated units in different buildings within the same housing complex.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의 목적

미래 사회의 주요문제 중 하나가 노인문제라는 것은 누구나가 공감하는 시대가 되었다. 이문제는 산업사회 진전에 따라 주목받는 비중이 더욱

커지기 마련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노인문제는 관심도에 따라 여러 형태로 연구가 진전되고 있다. 노인문제 중 가장 큰 문제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노인주거의 개발은 나라마다 각각의 역사적, 사회적 배경에 따라 다르게 발달되어 왔다. 따라서 모든 나라에 통용될 수 있는 해결책은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현대 산업화의 영향인 도시화, 핵가족화 현상의 팽배로 노인의 주거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노인의 주거문제에 대한 연구가 여러 각도에서 진행되고 있다.

1) 본 연구는 (주)청구의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2) 정희원, 연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주거환경학과 교수
3) 정희원, 연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주거환경학과 강사

노인주거의 일차적인 과제는 노인의 부양을 누가 책임질 것인가에 관한 것이고 노인복지 측면에서도 우리나라에서는 '선가정보호 후 사회보장'을 원칙으로 하므로 우리나라 노인의 주거에 관한 연구로는 노인동거가족을 대상으로 노인동거가족을 위한 주거개발에 대한 연구가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형 노인주택 대안이 될 수 있는 노인동거가족을 위한 주거 개발시 요구되는 계획지침을 설정하고자 한다.

2. 이론적 고찰

주택이라는 물리적 환경은 인간의 생활행위와 긴밀한 연관을 갖고 상호영향을 미친다. 모든 물리적 환경은 인간에 의해 만들어지고 형성되어지만 오늘날의 거주자 입장에서 볼 때, 주택은 거주자 스스로 건축하지 않고 계획하는 사람들에 의해 건축제공되는 입장이므로 이미 만들어진 물리적 환경이 인간의 생활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비중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주택은 그 속에서 거주하는 가족구성원들의 심리적, 정서적, 사회적, 행동적 제반생활을 수용해 주어야 하는데 오늘날에는 생활행동의 기능적 편리성만이 계획상의 목표가 되어왔고 그 대상가족 또한 보편적인 핵가족을 중심으로 하는 등 여러 형태의 가족 특성을 배려할 여유가 없었다. 그러므로 주택의 물리적 특성은 노인동거가족의 경우 적게는 바람직한 가족관계를 갖는데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에서 크게는 세대간의 이질적인 주생활의식, 주거행동으로 세대간 마찰을 일으켜 가족갈등으로 되는 원인이 될 수 있었다(이연숙 외, 1991). 그리하여 많은 노인동거가족들이 한주택에서 기거하는 것을 회피하는 성향을 갖게 해 온 것이 사실이다. 즉, 주택이 노인 동거가족에 적합하게 계획 혹은 디자인 되어 있었다면 얼마든지 동거 지속이 가능한 가족들을 그런 현실적인 대안이 부족하였기에 이산시켜 놓는 경우도 꽤 많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동거가능성이 있는 가족들이 실제 동거실행을 하는데 주택의 물리적 특성이 제약조건이 되어온 것도 사실이다.

우리의 전통 주거문화를 살펴보면 삼대이상의

확대가족이 살더라도 세대간의 마찰을 적게 할 수 있는 주거특성을 갖고 있었다. 즉, 전통주택에서 채가 분리되어 가족구성원간의 마찰을 적게 할 수 있었다거나 지방에 따라서는 하나의 울타리에서 세대간 서로 노출되어 마찰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필요에 따라 공간물림까지 하였던 지혜가 있었다(강신생, 1985).

이에 이연숙, 최혜정(1992)은 삼대가족형 공동주택유형으로 거리, 방향, 공적공간의 분리 개념을 기준으로 하여 18가지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 이때 거리의 기준은 노인세대와 자녀부부세대가 얼마만큼 떨어져 사는 가를 구분하는 것으로 거리는 단순히 물리적인 거리뿐 아니라 접근의 용이성까지를 포함하는 접근거리로 하였다. 이 기준으로 벽체나 벽체의 공유여부, 출입문의 개수, 내부통로의 유무에 따라 동거형, 인거형, 근거형으로 구분하였다. 방향은 노인세대와 자녀부부세대의 공간배치가 수평, 수직 중 어느 방향으로 구성하는가를 구분하는 기준이다. 공적공간의 분리 기준은 양세대가 공실을 공유하는지 분리하는지에 따라 공용, 부분분리, 분리로 구분하였다. 이들 기준에 의해 제시된 18가지 유형은 수평동거형, 수평부분분리 동거형, 수평분리 동거형, 수직동거형, 수직부분분리 동거형, 수직분리 동거형, 수평인거형, 수평부분분리 인거형, 수평분리 인거형, 수직인거형, 수직부분분리 인거형, 수직분리 인거형, 수직 근거형, 수직부분분리 근거형, 수직분리 근거형, 수평근거, 수평부분분리 근거형, 수평분리 근거형 등이다.

II. 연구 방법

1. 조사대상

조사대상은 중산층²⁾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전국에 있는 중산층 주부로 한정하였다. 대개의 주거정책 연구의 대상은 저소득층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으나 노인문제는 저소득층만의 문제가 아니며 현대사회에서 그 사회를 이끌어 가는 계층이

2) 중산층은 연구에 따라 그 폭이 전국민의 60%-90% 정도에 이룸

중산층이며 또한 중산층의 범위는 대단히 넓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 제약이 심하지 않은 계층이 어디서 어떻게 누구와 사는가를 결정하고 행하는 것은 국민의 문화적 주체의식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또한 선행연구(이연숙 외, 1991) 결과, 노인세대보다는 자녀세대가 의사결정영역에서 우세함을 보였으며 동거에 대한 회피현상을 보이는 경향도 부양세대가 될 자녀세대에서 더 강하게 나타났으므로 자녀세대, 특히 부양의 주체가 되는 주부의 의견으로 부터 공간적 요구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노인동거가족을 위한 주거개발 시 유인가가 더 높을 수 있다는 가정에서 대상이 선정되었다.

2. 조사내용

조사내용은 조사대상의 일반사항, 선호하는 공간상, 주거단위내 제반 공간적 특성에 대한 선호에 관한 것이다.

3. 자료수집 및 처리

월간여성지인 대중매체를 이용하여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한국형 노인주택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한 후, 후속 노인주택에 대한 연구에 응답 협조를 표명하는 엽서를 회송하도록 하였다. 엽서를 회송한 협조가능한 주부를 대상으로 1991년 11월 16일 - 12월 3일까지 설문지를 답례품과 함께 송부하였고 1991년 12월 23까지 연구자에게 반송된 것으로 제한하여 이때까지 반송된 578 부중 467부를 분석자료로 이용하였다.

자료의 분석으로는 SAS통계 패키지를 이용 단순빈도, 백분율, 평균, x^2 검정을 실시하였다.

4. 공간상 분석을 위한 변인 유형

노인동거가족의 선호공간상을 조사하기 위하여 노부모세대와 기혼자녀세대 생활영역의 공간적 관계를 다양한 관점에서 분류가 가능하나 공간적 분류방법은 크게 거주공간상의 분류방법과 계획주거유형 분류방법 두가지로 분류하였다.

첫번째 공간상 분류방법인 거주공간상 분류방

법은 5가지 척도로 분류하였다. 척도 1은 같은 집-같은 건물-같은 단지-같은 구-서울시(같은 시)-지방-국외로 구성된 척도로서 실제의 물리적 거리를 강조하였다. 척도 2는 앞서 언급한 물리적 거리 중 집이란 생활영역 단위가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에 중점을 두고 같은 집이나 같은 건물의 거리인 경우를 보다 구체적으로 동거, 인거, 건물내 근거로 구분하고 계획주거가 아닌 경우 같은 구 이상에서 사는 것을 별거로 통합시켜 새로운 동거-인거-건물내 근거-건물외 근거-별거의 척도로 구성하였다. 척도 3은 척도 2중 건물내 근거와 건물외 근거를 통합시킨 것으로 유니트관계 측면을 강조하면서 물리적 거리 개념을 반영한 것이다. 척도 4는 척도 3의 인거와 건물내 근거를 통합시킨 것으로 과거에 하나와 같은 평면에서 사는 것을 동거, 그렇지 않은 것을 별거로 생각하였던 양극 척도사이에 절충적 계획주거 유형을 새로 도입한 것이다. 척도 5는 동거, 인거, 근거형을 노인동거 가족을 장려하기 위한 계획주거 유형으로 통합하고 이를 별거와 대응시킨 것이다. 이들 개념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계획주거유형 분류방법은 다시 같은 단지내 계획주거를 포함하는 것과 같은 건물내 계획주거를 모두 포함하는 것, 그리고 선호조사결과 같은 건물내 계획주거 중에서 선호도 순으로 선정된 몇개의 유형으로 구성된 것 등 3가지 범주로 분류하였다. 또한 같은 건물내 포괄적 계획주거유형 분석 범주는 거리, 방향, 공적공간분리정도 등의 주거유형분리기준에 의해 18가지의 계획주거유형으로 분석하였다.

<표 1> 거주공간상 분석을 위한 척도 및 주요개념

유형	척도	주요개념
척도1	같은 집-같은 건물-같은 구-같은 구 외의 지역	물리적 거리
척도2	동거-인거-건물내 근거-건물외 근거-별거	노부모세대, 자녀세대 생활공간 유니트 관계+물리적 거리+심리적 거리
척도3	동거-인거-건물내외의 근거-별거	노부모세대, 자녀세대 생활공간 유니트 관계+심리적 거리
척도4	동거-인거/건물내외의 근거-별거	과거 동거 개념과 본 연구가 제안하고 있는 현대적 절충적 동거 개념과의 관계
척도5	동거/인거/건물내외의 근거-별거	현대적 동거 개념 수용안과 별거

III. 연구결과 및 논의

1. 조사대상의 특성

조사대상의 특성으로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주택특성을 조사하였다.

사회인구학적 특성으로 가족수는 5인인 경우가 35.1%, 6인인 경우가 25.7%였으며 평균 5.6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부의 연령은 26-30세가 41.5%, 31-35세가 29.8%였으며 가족생활주기는 미취학기가 60.0%, 국민학교기가 23.6%로, 전반적으로 젊은 연령의 초기 가족단계에 있었다. 조사대상의 대부분인 80.3%가 시부모와 동거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양친(47.3%)이거나 편모(36.8%)와 동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연령도 조부의 경우 55세 이하가 47.3%, 조모의 경우 62.0%로 나타나 비교적 젊은 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연구의 결과는 차후의 노인 동거가족을 위한 주택개발시 보다 유용한 자료가 되리라 사료된다.

주택특성으로는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가 45.5%, 단독주택거주자가 34.3%였으며, 현재주택의 소유형태도 자택인 경우가 79.7%였다. 거주면적은 25평이하가 48.6%로 가장 많았으며 사용하는 방수는 3개가 56.8%로 가장 많았다.

2. 공간적 환경에 대한 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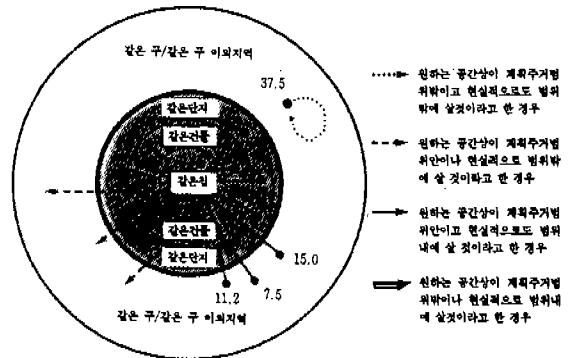
1) 선호하는 거주공간상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노부모와의 거주거리를 조사한 결과 <표 2>와 같이 시부모인 경우 같은 집에서 동거를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8.1%였으며 친정부모의 경우도 1.8%가 같은 집에서 동거를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같은 구까지의 거리는 시부모의 경우 49.8%, 친정부모의 경우 57.1%가 이상적인 노부모와의 거리로 지적하였다. 이는 조사대상이 현재 노인과 동거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특히, 대부분이 시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가족집을 생각할 때 약 92%가 같은 집에서 동거를 원하지 않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는 스트레스의 잠재성을 드러내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표 2> 부모와의 원하는 거주거리

분 포	이상적 거리				현실적 거리			
	시대 f	부모 %	친정 f	부모 %	시대 f	부모 %	친정 f	부모 %
같은 집	37	8.1	8	1.8	137	28.9	31	7.0
같은 동(건물)	42	9.2	46	10.4	74	16.1	83	18.7
같은 단지	61	13.3	99	22.5	80	17.4	126	28.4
같은 구	89	19.4	99	22.5	54	11.8	81	18.2
같은 구외 지역	230	50.2	189	42.9	114	24.8	123	27.7
계	459	100.0	441	100.0	459	100.0	444	100.0

한편 현실적인 의견을 파악하기 위하여 각 구의 현실적인 여건 등을 감안하고 노인 동거를 위한 다양한 주거대안이 개발보급될 경우 어느 정도의 거리에서 살 것인가를 조사한 결과, 시부모의 경우 같은 집이 28.9%, 같은 동까지가 45.0% 같은 단지까지가 54.1%였으며, 친정부모의 경우도 같은 집이 7.0%, 같은 동까지가 25.7%로 이상적인 거리와 비교해 볼때 상당히 부모와의 거주거리가 가까워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노부모와의 거주거리 변화양상을 보면 이상적인 동거거리가 주거대안으로 제시된 현실적 동거거리에 더욱 좁혀진 양상을 보이며 특히 친정부모보다는 시부모쪽이 현실적 거리가 더 가까워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부모와의 동거시 거주거리 변화양상을 정리하면 <그림 1>과 같다. 이는 노인동거가족을 위한 다양한 주거개발의 필요성 및 잠재적 효용성이 큼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림 1> 시부모와의 이상적인 거주거리와 계획 주거 개발시 현실적으로 선택한 거주거리와의 차이로 본 계획주거 유형의 잠재적 효용성

현실적으로 선호하는 거주공간상을 본 연구에서 사용한 거주공간상 분류척도에 의해 분석해보면 <표 3>과 같다. 계획주거와 비계획주거로 나누어 볼 수 있는 척도 5의 경우를 보면 시부모인 경우 계획주거의 희망비율이 60.1%로 나타났으며 친정부모인 경우는 51.7%로 나타났다.

<표 3> 현실적인 거주공간상에 대한 선호

척도 2	시택 f %	친정 f %	척도 3	시택 f %	친정 f %	척도 4	시택 f %	친정 f %	척도 5	시택 f %	친정 f %
동거	85 20.2	26 6.2	동거	85 20.2	26 6.2	동거	85 20.2	26 6.2	동거		
인거	70 16.6	49 11.6	인거	70 16.6	49 11.6	인거			인거	253 60.1	218 51.7
건물내 근거	18 4.3	17 4.0	근거	98 23.3	143 33.9	및 근거	168 39.9	192 45.5	(계획주거)		
건물외 근거	80 19.0	126 29.9	별거	168 39.9	204 48.3	별거	168 39.9	204 48.3	별거	168 39.9	204 48.3
계	421 100.0	422 100.0	계	421 100.0	422 100.0	계	421 100.0	422 100.0	계	421 100.0	422 100.0

2) 선호하는 계획주거 유형

노부모와 동일 단지내 계획주거를 원한다고 답한 경우 <표 4>와 같이 시부모인 경우는 동거를 35.4%, 건물외 근거를 31.1% 선호하였으며, 친정부모의 경우는 건물외 근거를 57.8%, 인거를 22.5% 순으로 선호하여 계획주거내에서도 친정 부모보다는 시부모와의 거리가 가까운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동일단지내 계획주거에 거주하겠다고 한 경우 동일단지내 계획주거 유형에 대한 선호

척도 2	시택 f %	부모 f %	친정 f %	부모 f %	척도 3	시택 f %	부모 f %	친정 f %	부모 f %
동거	75 17.8	35.4	26 6.2	6.2	동거	75 17.8	35.4	26 6.2	11.9
인거	58 13.3	27.4	49 11.6	22.5	인거	58 13.3	27.4	49 11.6	22.5
건물내 근거	13 3.1	6.1	17 4.0	7.8	건물내 근거	13 3.1	6.1	17 4.0	7.8
건물외 근거	66 15.6	31.1	126 29.9	57.8	건물외 근거	66 15.6	31.1	126 29.9	57.8
계	212 100.0		218 100.0		계	212 100.0		218 100.0	

동일건물내에 거주하겠다고 한 경우 선호하는 계획주거유형은 <표 5>, <표 6>과 같다.

계획주거유형에 대한 선호는 전체적으로 거리 개념에서 볼 때 동거가 44.3%, 인거가 42.5%로 나타났으며 방향면에서는 63%가 수직 공간배치를 선호하였고 공적공간의 분리는 부분공용을 61.6%

가 선호하였다. 다시 동일 건물에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응답자의 경우, 18가지 계획주거 유형에 대한 선호를 보면 전체적으로 수직부분분리 동거형을 26.7%, 수직부분분리 인거형을 15.1%, 수평부분분리 인거형을 10.5% 순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노인동거 가족을 위한 계획주거 개발시 구체적 주거유형 계획 지침이 되며 특히 동일 단지내에서 개발할 경우 각 주거 유형의 계획비율 결정시 이용할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이다

<표 5> 동일 건물내 계획주거 유형에 대한 선호

기준	주거 유형	시택 f %	부모 f %	친정 f %	전체 f %	
거리	동거	75 17.8	51.4	7 1.7	30.4	97 44.3
	인거	58 13.3	39.7	14 3.1	60.9	93 42.5
	근거	13 3.1	8.9	2 0.5	8.7	29 13.2
	계	146 100.0		23 100.0		219 100.0
방향	수평	46 10.5	32.9	13 2.9	56.5	81 37.0
	수직	98 22.5	67.1	10 2.2	43.5	138 63.0
	계	146 100.0		23 100.0		219 100.0
공적 공간 분리정도	공용	25 5.8	17.1	3 0.7	13.0	35 16.0
	부분공용	98 22.5	67.1	14 3.1	60.9	135 61.6
	분리	23 5.3	15.8	6 1.3	26.1	49 22.4
	계	146 100.0		23 100.0		219 100.0

<표 6> 18가지 계획주거 유형에 대한 선호

주거유형	구분		시택 부모		친정 부모		전체	
	f	%	f	%	f	%	f	%
수평동거	6	4.1	1	4.1	8	3.7		
수평부분분리동거	11	7.5	2	8.7	14	6.4		
수평분리동거	1	0.7	0	0.0	1	0.5		
수직동거	13	8.9	1	4.4	14	6.4		
수직부분분리동거	41	28.1	3	13.0	54	26.7		
수직분리동거	3	2.1	0	0.0	6	2.7		
수평인거	3	2.1	1	4.4	6	2.7		
수평부분분리인거	13	8.9	6	26.1	23	10.5		
수평분리인거	7	4.8	2	8.7	16	7.3		
수직인거	1	0.7	0	0.0	2	0.9		
수직부분분리인거	27	18.5	2	8.7	33	15.1		
수직분리인거	7	4.8	3	13.0	13	5.9		
수직근거	0	0.0	0	0.0	0	0.0		
수직부분분리근거	4	2.7	0	0.0	6	2.7		
수직분리근거	3	2.1	1	4.4	7	3.2		
수평근거	2	1.4	0	0.0	5	2.3		
수평부분분리근거	2	1.4	1	4.4	5	2.3		
수평분리근거	2	1.4	0	0.0	6	2.7		
계	146	100.0	23	100.0	219	100.0		

3) 주거단위내 제반 공간적 특성에 대한 선호

선호하는 주택유형으로는 단독주택이 바람직하나 단독주택의 좋은 특성이 아파트에 수용된다면 아파트도 고려할 수 있다가 52.8%로 가장 많았으며 아파트가 바람직하나 아파트의 장점이 단독주택에 수용된다면 단독주택도 고려할 수 있다가

26.1%였다. 이는 노부모 동거시 아파트나 단독주택 중 어느 한 형태가 주장되기보다는 서로의 장단점을 보완 수용하면 유동적 반응을 보이게 되며 특히 단독주택의 장점 보완을 한 아파트로의 이동이 많을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므로 노인 동거가구를 위한 아파트 개발의 잠재적 효용성이 높음을 나타낸다. 또한 단독주택의 장점으로는 정원의 설치가 27.8%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세대간의 공간분리, 가정대소사의 편리, 프라이버시 보장이 각각 7.6%, 7.6%, 6.2%인 것으로 나타나 노인동거가족을 위한 아파트 개발시 이점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노인동거 가족 생활에 적합한 주택의 규모는 평균 39.5평이었으며 36평-40평이 23.4%, 31-35평이 20.0% 순이었다. 생활에 필요한 최소 규모는 평균 33.5평으로 31평-35평이 24.5%, 26평-30평이 22.1%였다. 또한 각응답자의 적합한 규모와 최소규모와의 차이는 평균 5.9평으로 나타났다.

적합한 규모 분포를 보고 특정범위의 평형을 제공할 때 최소규모로 이 범주의 평형을 지정한 대상도 수용가능하다는 견지에서 노인동거가족에 적합한 규모와 최소 주택규모와의 응답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교차표를 작성하였으며 그 결과 <표 7>과 같다. 중산층 노인동거가족을 위해 26평에서 40평까지를 보급할 경우 최소규모와 적합규모의 교차비율의 합산 결과 79.1%라는 대다수의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다. 가족수에 따른 노인동거가족에 적합한 주택의 규모와 최소규모에 대한 x^2 검정결과 <표 8>, <표 9>와 같이 가족수 증가에 따라 주택의 규모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노인동거 가족에 적합한 주택규모와 최소 규모와의 교차표

적합 최소 규모	25평이하		26-30평		31-35평		36-40평		41-45평		46평이상		계	
	f	%	f	%	f	%	f	%	f	%	f	%		
25평이하	28	65.1	30	6.4	19	20.2	9	8.3	2	3.8	4	3.7	92	19.7
26 - 30평	4	9.3	23	4.9	32	34.0	33	30.3	5	9.4	6	5.5	103	22.1
31 - 35평	3	7.0	5	1.1	38	40.4	36	33.3	15	26.3	18	16.5	115	24.6
36 - 40평	5	11.6	1	0.2	4	4.3	30	27.5	23	43.4	29	26.6	92	19.7
41 - 45평	2	4.7	0	0.0	1	1.1	0	0.0	8	15.1	0	0.0	22	4.7
46평이상	1	2.3	0	0.0	0	0.0	1	2.3	0	0.0	41	37.6	43	9.2
계	43	9.2	59	12.6	94	20.1	109	23.3	53	11.4	109	23.3	467	100.0

<표 8> 가족수에 따른 적합한 주택의 규모에 대한 x^2 검정결과

가족수 규모	4명 이하		5명		6명		7명		계		x^2 (C)
	f	%	f	%	f	%	f	%	f	%	
25평 이하	12	14.6	14	8.5	11	9.2	6	5.9	43	9.2	53.27** (0.32)
26 - 30평	11	13.4	22	13.4	14	11.7	12	11.9	59	12.6	
31 - 35평	24	29.3	40	24.4	13	10.8	17	16.8	94	20.1	
36 - 40평	19	23.2	40	24.4	34	28.3	16	15.8	109	23.3	
41 - 45평	6	7.3	19	11.6	15	12.5	13	12.9	53	11.4	
46평 이상	10	12.3	29	17.7	33	27.5	37	36.6	109	23.3	
계	82	17.5	164	35.1	120	25.7	101	21.6	467	100.0	

*** 0.001 수준에서 유의적임

<표 9> 가족수에 따른 최소 주택 규모에 대한 x^2 검정결과

가족수 규모	4명이하		5명		6명		7명		계		x^2 (C)
	f	%	f	%	f	%	f	%	f	%	
25평 이하	24	29.3	34	22.6	15	12.5	15	14.9	92	19.7	41.51* (0.29)
26 - 30평	19	23.2	44	26.8	21	17.5	19	18.8	103	22.1	
31 - 35평	21	25.6	41	25.0	30	25.0	23	22.8	115	24.6	
36 - 40평	10	12.2	24	14.6	32	26.7	26	25.7	92	19.7	
41 - 45평	4	4.9	9	5.5	6	5.0	3	3.0	22	4.7	
46평 이상	3	3.7	9	5.5	16	13.3	15	14.9	43	9.2	
계	82	17.6	164	35.1	120	25.7	101	21.6	467	100.0	

* 0.05 수준에서 유의적임

적합한 방의 갯수는 평균 4.1개로 4개가 54.5%, 5개가 21.3%, 3개가 16.9% 순이었으며, 최소한의 방의 갯수는 평균 3.7개로 4개가 44.8%, 3개가 41.8%, 5개가 9.9% 순이었다. 노인동거가족에 적합한 방의 갯수와 최소 갯수와의 응답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교차표를 작성하였으며 그 결과 <표 10>과 같다. 중산층 노인동거가족을 위해 방의 갯수를 3-4개 보급할 경우 만족하는 수요비율을 추정하기 위해 적합한 방수와 최소 방수 3-4개의 교차 %를 합산한 결과, 방의 갯수가 3-4개인 경우 노인동거가족 90%라는 대다수의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이외에 원하는 거실수는 1개가 62.6%, 2개가 36.3%였으며, 식당은 1개가 89.8%, 2개가 10.2%, 부엌은 1개가 81.3%, 2개가 18.7%, 현관은 1개가 77.3%, 2개가 22.7%, 욕실은 2개가 76.2%, 3개가 17.7%로 나타났다. 원하는 욕실의 갯수가 2개인 경우 선호하는 욕실의 유형

은 세면기+변기+욕조/샤워기를 갖춘 욕실을 가장 많이 선호하였으나 그밖에 세면기와 변기만 있는 화장실이나 세면기만 있는 것을 원하는 비율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다양한 형태의 공급이 요구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0〉 적합한 방의 갯수와 최소한의 방 갯수와의 교차표

적합한 방수 최소방수	2개 이하		3개 - 4개		5개		6개 이상		계	
	f	%	f	%	f	%	f	%	f	%
2개 이하	3	37.5	6	1.8	1	1.0	0	0.0	10	2.2
3개	2	25.0	178	54.1	14	14.4	0	0.0	194	42.2
4개	2	25.0	139	42.3	57	58.8	10	38.5	208	45.2
5개	1	12.5	6	1.8	25	25.8	12	46.2	44	9.6
6개 이상	0	0.0	0	0.0	0	0.0	4	15.4	4	0.9
계	8	1.7	329	71.5	97	21.1	26	5.7	460	100.0

세대별 주거계획시 배려사항은 〈표 11〉과 같다. 각 세대별로 중요시 되어지는 배려사항을 순위대로 살펴보면, 우선 노부모세대쪽에는 전용욕실이 77.5%, 난방이 75.0%, 향/채광/일조가 63.5%, 방음이 52.6% 방크기가 49.5%였으며 자녀세대쪽은 전용욕실이 84.3%, 방음이 71.8%, 실내디자인/장식이 67.3%, 방 크기가 61.3%, 부엌의 위치가 60.3%, 세대간의 분리가 55.6% 순이었다. 각각의 배려사항을 노부모세대와 자녀세대를 비교해 보면 두세대 모두 프라이버시 측면이 중요시되며 자녀세대가 프라이버시에 대한 요구와 실내장식적 요구가 높으며 노부모세대는 생리적, 쾌적성에 대한 요구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내에서 시각적 선호에 대한 자유를 원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은 우리사회의 주거문화 발달단계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공간의 분리지향적 요구가 움직이는 행동적 제약에서만 아니라 시각적 경험제약에서도 그 원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그러나 노부모쪽의 응답이 본 연구에서는 자녀세대가 한 것이므로 그들이 그들의 노부모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한 내용이지 실제 노부모쪽에서 나온 요구사항이 아닐 수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야 한다.

〈표 11〉 노부모세대와 자녀부부세대의 배려사항
N=467

배려사항	노부모 세대		자녀부부 세대	
	f	%	f	%
향/채광/일조	266	63.5	214	46.0
방크기	230	49.5	285	61.3
전용 욕실	361	77.5	392	84.3
난방	354	75.0	240	51.5
세대간의 분리	195	41.9	258	55.6
시설(방, 창문)의 안전성	211	45.3	147	31.6
실내디자인/장식	124	26.7	314	67.3
방음	245	52.6	334	71.8
부엌의 위치	111	23.8	281	60.3
방의 갯수	1	0.2	0	0.0
전용 거실	1	0.2	1	0.2
개인공간	1	0.2	1	0.2
수납공간	2	0.4	0	0.0
편리성	0	0.0	1	0.2
기타	4	0.8	5	1.0

이상 주거계획시 사용자가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반 특성을 머사(Multha, 1976)의 4 측면으로 포괄적으로 제시할 경우 이들의 상대적 비중이 어떠한가를 파악하기 위해 노인동거가족을 위한 주택계획시 주택디자인에 있어서 중요하게 고려될 측면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 〈표 12〉와 같다. 가장 중요하게 고려될 측면은 프라이버시로서 65.8%이며 편리성은 18.7%, 안정성은 11.5%이었다. 따라서 세대간 갈등이 적고 신경이 덜 쓰이도록 분리시킴과 동시에 필요에 따라서는 자연스럽게 세대간 접촉을 유도하는 방의 배치와 연결하는 등 프라이버시 유지를 위한 배려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표 12〉 주택디자인시 중요시 배려할 측면
N=467

배려할 측면	분포	
	f	%
편리성 : 주택내의 가사사업 활동 등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배려	83	18.7
안정성 : 노부님께 위험한 것이 없고 안전하며, 노부모님의 건강을 위해 공기가 좋도록 배려	51	11.5
실내장식 : 실내가 삭막하지 않게 노부모님에게 정서적으로 좋도록 실내분수나 창문의 크기, 문의 디자인, 발코니의 자연스러운 채광 등 실내장식 측면에서의 배려	18	4.1
프라이버시 : 노부모세대와 자녀부부세대간에 갈등이 적고, 신경이 덜 쓰이도록 세대간의 프라이버시를 지켜주고, 필요에 따라 자연스럽게 접촉할 수 있는 방의 배치와 연결을 배려	292	65.8
계	444	100.0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노인동거가족을 위한 주거유형을 분류하고 이를 이용 노인동거가족이 선호하는 공간상 및 공간적 요구 특성을 파악하여 계획에 필요한 자료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근거로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노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가족의 다수가 노부모와의 별거를 원하고 있으나 노인동거가족을 위한 다양한 유형의 계획주거가 공급될 경우 노부모세대와 함께 거주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사회적으로 문제시되고 있는 노인문제와 우리의 가족문화의 붕괴가 주택을 변화시킴으로서 점차적으로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다양한 시각에서의 노인동거가족의 생활을 배려한 창의적인 공간계획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둘째, 노인동거가족을 위한 주택의 잠재적 효용성이 입증된바 이를 보급하기 위해서는 계획단지 건설시 일정비율을 할당하도록 하는 의무조항이 관련 법규에 삽입될 필요가 있다. 이 비율로는 현재 도시의 노인동거가족 비율을 대략 12%로 볼 경우, 본 연구에서 62.5%가 단지내 근거를 택한 결과를 참조한다면 도시내 제공될 노인동거가족을 위한 주택의 비율은 약 7.5%정도가 최대 기준이 되리라 생각된다.

세째, 주택평형규모는 26평-40평까지를 공급하면 현재 노인동거가족의 79%를 만족시킬 수 있으며 26평 이상 45평까지를 공급할 경우 84%까지를 만족시킬 수 있으므로 26평-46평 범위의 공급이 바람직하다. 방의 갯수는 3-4개를 공급할 경우 노인동거가족의 90%를 만족시킬 수 있으므로 방의 갯수에 대한 규범은 3-4개로 고정시켜도 무난하다.

네째, 노인동거가족을 위한 대안으로 제공될 수 있는 주거유형은 주로 수직부분분리 동거형과 수직동거형, 수직부분분리 인거형, 및 수평부분분리 인거형이며 각 유형이 제공되어야 할 비율은 <표 13>과 같다.

다섯째, 노인동거가족을 위한 평면계획시에는

기존공간구성에 관한 규범에서 벗어나 보다 창의적인 계획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욕실, 거실, 부엌, 식당 등이 융통성 있게 재고되어야 하며 세대간 프라이버시 확보에 많은 배려를 해야할 것이다.

<표 13> 노인동거가족을 위해 제공되어야할 주거유형비율에 대한 계획 지침 - 시대부모와의 관계기준

구분	고려사항(전정)		
주거 유형 분포	동거 인거	34%(12%)	
	건물내 근거	28%(22%)	
	건물외 근거	7%(8%)	
		32%(58%)	
동거, 인거의 경우 선정된 구체적 단위 주거유형 및 분포	동거형 중 (전체 34%에 해당)	수직부분 분리동거 수직 동거	76% 24%
	인거형 중 (전체 28%에 해당)	수직부분 분리인거 수평부분 분리인거	67% 33%

참고 문헌

- 강신생, "안. 밖거리형 살림집의 공간구성에 대한 연구 : 제주도", 건축문화, 1985, 32-38
- 대한주택공사, "3세대 가족형 공동주택 개발 연구", 1987.
- 박태환, "지역통합형 노인 계획주거의 모형개발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0.
- 박하전, "집합주택에 있어서의 3대 직계가족의 주 생활에 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85
- 이가옥, "노인 부양에 관한 연구", 한국인구보건원, 1990
- 이상영, "한국 3대 동거가족 주거형태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5
- 이연숙, 김용학, 신화경 외, "한국의 주거문화 모델 개발보급 방안 연구", 문화발전연구소, 1991.
- 이연숙, 신화경 외, "실증적 관점에서 본 삼대가족 아파트 개발의 타당성", 한국주거학회지, 3(1), 1992

- 이연숙, 최혜정. "삼대가족 아파트의 단위주거 유형화". 대한건축학회논문집. 8(3). 1992.
- Baron, P. D. "Housing Options for Seniors Today". Aging. No.356. 1987
- Hubbard, L. & T. Beck. "Housing Options for Older Americans". American Association of Retired Persons. 1984
- Murtha, D. M. "Dimensions of User Benefit". Washington, D.C.:American Institute of Architecture. 1976
- Parker, R.E. "Housing for the Elerly". Institute of Real Estate Management of the National Association of Realtors. Chicago. 1984
- Tripple, P. A., et al. "Elder-Cottage Housing:A Housing Alternative for the Older Population". Housing and Society. 17(2). 1990. 17-29

